



백두대간 종주 11보

(소백산의 눈코라를 헤치고)

광전재료과 화공사무관 최 월 영

<제21회차> 선달산(1,236m)

* 일시, 소요시간 : 2003. 12. 14(일)

03:40 ~13:30(9시간50분)

* 행정구역 : 경북 영주, 봉화군

* 산행구간 : 세거리-고치령-마구령-선달산-박달령-오전약수 26.3km

○ 구간 설명

이번 구간은 경북 영주시 단산면을 가로 질러 부석면을 지나 구간의 주봉인 선달산 정상을 차례로 지나면 우측으로 경북 봉화군의 최북단 몰야면에 들어서고 좌측으로는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의 남단으로 진입한다.

☞ 03:20 세거리 도착, 03:40 산행시작

오늘의 산행구간은 죽령에서 고치령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산불감시 관계로 죽령휴게소까지 우리를 태운 고려고속관광버스가 갔다가 되돌아 와서 다음 구간인 세거리 다당에서 산행준비를 하여 차에서 내린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산골의 캄캄한

밤은 적막하여 개 짖는 소리도 없었다. 이곳은 풍기에서 순흥면의 소수서원을 지나 부석면에 있는 회방사로 가는 길 중간 단산면 소재지에서 좌측 북서 방향으로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올라가면 상좌석, 하좌석리로 가는 삼거리에서 내린다. 그리고 이길을 따라 계속 가면 고치령을 넘어 의풍을 지나 강원도 영월로 갈 수 있다.

☞ 04:30 고치령 도착/출발

이번구간의 산행 들머리는 좀 특이하다 차에서 내려서 백두대간 마루금인 고치령까지는 약 4.8km로서 올라가는 시간이 약 1시간30분이 소요되지만 이구대장과 고려관광 박소장님의 배려로 고개마루 중간까지 올라가서 산행을 시작한다. 종주자 대개가 고치령 출발점까지는 택시 혹은 트럭 등 특별 유료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한다.

평상시 보다 좀 늦은 시간에 도착한 산행 기점인 고치령, 랜턴 불빛으로 보이는 "긴급구조요청 안내관" 안내간판을 뒤로하고 우측 북동쪽으로 들어선 마루금 위에 올라서니 하늘에



는 달빛이 흐려지고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웬지 모를 산행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 같다.

☞ 05:30 미내치 도착

고치령을 출발하여 5분여 능선길을 오르면 마구령→8.0km 라는 첫번째 이정표를 지나 조그만한 공터에 올라선다. 다시 고도를 서서히 높이면 고치령←1.1km/마구령→6.9km/늦은독이→12.8km 이정표를 만나다. 가던 길에 고도를 천천히 낮추어 고치령←2.0km 이정표가 있는 877봉과 고치령←3.0km 이정표가 있었던 830봉을 차례로 지나 내리막길을 내려서면 미내치에 도착한다.

미내치 해발820m=고치령←3.2km/마구령→4.8km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고 좌측으로 도화동으로 가는 등로와 우측으로는 달터로 내려가는 등로 길이 있다.

본격적으로 소백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불이 얼고 손이 얼고 눈이 얼어 이젠 앞뒤로 누가 지나가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미내치를 뒤로하고 오르막길을 따라 854봉을 넘어 내려가는 길에 나무가지를 잡지만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20여분을 산행하면 고치령←4.0km와 고치령←5.0km 이정표를 차례로 지난다. 계속해서 고도를 서서히 높여 조그만한 헬기장 공터에 올라서면 고치령←5.2km/마구령→2.8km 이정표를 지나 또다시 고치령←6.0km 이정표가 세워진 안부에 도착하여 잠시 숨을 돌리고 가파른 오름막길을 오르면 1096봉 정상에 도착한다. 산행시간 3시간이 넘어가고 이젠

눈과 바람과 추위와의 싸움에서 배고픔까지도 가세하여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매우 무겁다.

☞ 06:56 마구령 도착

1096봉을 넘어 내리막길을 서서히 내려서면 고치령←7.0km/마구령→1.0km 이정표를 지나 비탈길을 내려서면 넓은 눈길 도로가 있는 마구령에 도착한다. 마구령에 도착하니 선발대 3명이 잠시 숨을 돌리면서 밥을 먹고 갈것인지 더 진행할 것인지 의논하고 있다. 나도 남은 사천왕들을 기다리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장비를 재차 점검하면서 해가 뜨면 아침을 먹기로 하고 다음 구간을 진행하기로 한다. 마구령 도로를 가로 지나면 좌측으로 마구령 해발 810m(비로봉←22.1km/고치령←8.0km/늦은독이→5.9km/선달산→7.8km)라고 표기한 이정표 표지독이 세워져 있었고 바로 옆에는 조그만한 돌탑도 있다. 이곳에서 좌측은 1시간 거리에 초막거리로 가는 길이고 우측으로는 2시간 거리에 부석 북부 초등학교로 하산하는 도로이다.

마구령 이정표를 지나 좌측길을 택하여 서서히 오름길을 오르면 마구령←1.0km/늦은독이→4.9km 이정표를 만나고 다시 894m봉 헬기장에 오르면 50-123-3-9이라는 번호가 있었다.

시계는 7시 40분을 가리키고 뱃속에서는 곡기를 보내라는 신호가 자꾸만 발길을 붙잡는다. 바람이 잔잔한 헬기장에 터를 잡고 아침 단찬을 위한 밥상을 차린다. 오늘의 메뉴는 돼지볶음, 곰탕에 단두국, 밥에 백세주 및 소주로 가



히 산중음식으로 성찬이다. 아침을 먹고 있는 중간 중간 후발대를 붙잡아 소주 한잔에 고기 한 점을 대접하느라 1시간 정도 소비하고, 다시 내리막 눈길을 따라 내려서면 안부를 지나 서서히 고도를 높여 가면서 오르면 1057봉 넓은 헬기장에 올라선다. 이곳은 넓은 공터였는데 눈으로 덮여 있었고 철근으로 만든 삼각절 테두리가 2군데 있다.

☞ 09:50 갈곶산/각곶산(966봉) 봉황산(부석사) 갈림길

1057봉 헬기장을 지나면 능선길은 내티막길에 마구령←2.0km/늦은목이→3.9km 이정표를 지나고 계속해서 내려서면 늦은목이→1.9km 이정표와 “긴급구조 소백10-26” 안내판이 나란히 세워진 능선을 지나 934봉까지 계속된다. 길은 능선을 지나 오르막길을 10여분을 지나면 봉황산(부석사)갈림길이 있는 갈곶산에 올라선다. 정상에는 봉황산 갈림길 해발966m=비로봉←27km/마구령←4.9km/늦은목이→1.0km/선달산→2.9km이라는 이정표 표지목이 세워져 있었고 누군가가 이정표 표지목 막대기엔 “갈곶산” 이라고 적어 두었다. 이곳 삼거리에서 우측 등로는 봉황산과 부석사로 하산하는 등로가 연결되고 좌측길은 늦은목이로 가는 대간길이다

966봉 갈곶산을 넘어서 급한 내티막 길을 따라 능선 하나를 넘어면 안부인 늦은목이에 도착한다 “늦은목이 해발800m=선달산→1.9km/마구령←5.9km/비로봉←28.0km” 이라는 이정표 표지목과 소백산국립공원 안내 간판이 있었고

“생달(동쪽)1시간/선달산40분 이내” 이라고 적힌 이정표 나무판자도 나무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소백 01-30”이라는 긴급구조 위치 표지판도 세워져 있다. 이곳까지가 소백산 국립공원관리지역이 끝나는 지점으로 좌측으로는 강원도 남대천이 흐르는 상신기, 남대, 송내와 의풍으로 하산하는 길이 있고 우측으로는 골터골과 생달을 지나 봉황산과 부석사로 하산하는 길이 있어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녔던 큰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이곳을 지나면 강원도로 진입한다.

☞ 10:56 선달산(1236m) 정상 도착

늦은목이를 뒤로하고 서서히 오름길을 따라 오르면 늦은목이가 자꾸만 발 아래로 멀어진다. 1,000고지 이상을 올라서면서 다시 바람이 세차지고 나무가지에 얼어붙어 있던 눈발이 날리면서 앞길을 방해하고 가파른 오름길이 중복되면서 숨이 턱에 차고 식었던 땀이 다시 이마를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선달산까지 약 1.7km 정도인데 몇 시간을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게 선달산 정상에 오르면 넓은 공터가 있고 잔디밭산악회에서 세운 막대 이정표가 “선달산 1236m” 라고 새겨진 표지목이 반쯤 기울어 흔들거리고 있다. 그 옆으로 뾰족히 보이는 삼각절도 박혀 있다.

나무가지에 누군가가 선달산 1236m라는 표지목을 붙여 놓아 가지에 핀 눈꽃을 배경삼아 증명사진을 찍는다. 이제부터 좌측은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과 우측은 경북 봉화군 돌야면을 밟으며 산행하게 된다. 또 좌측으로 道界를



따라 영월군 하동면으로 하산하는 등로가 있다.

선달산 내티막 길이 무척 미끄럽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대간길 우측으로 왕바위꼴로 하산하는 등로를 지나 안부에 도착하고, 다시 오르막길을 따라 10여분을 올르면 1246봉에 올라선다. 이곳에는 선달산(15분)←백두대간→(1시간45분)박달령” 이라고 새겨진 나무로 단은 이정표가 있지만 거리 표시가 없다. 대간길 좌측으로는 칠통동 계곡으로 하산하는 등로가 있다.

☞ 12:40 박달령 도착 우회

1246봉을 넘어 박달령까지는 그야말로 많이 힘들었던 구간이다 우측 양지쪽 비탈길을 이용하여 산행이 계속되면서 어떤 곳은 눈이 녹아 질퍽해 비탈길이 무척 미끄럽다. 지루한 비탈길을 넘고 넘어면 잘 다듬어진 타원형의 독판에 검은 글씨가 새겨진 이정표가 →(1시간)박달령, →(20분)박달령 이라는 표지 안내판을 지나 아래로 떨어지면 큰 헬기장을 가로질러 시멘트 포장길 915번 지방도토가 지나는 박달령 고개 마루에 도착한다.

길 건너편 옥석산 들머리쪽에 산신각이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고, 고개 마루에는“ 선달산 2시간/옥석산 1시간20분/주실령 2시간/오전약수탕 50분” 이라는 이정표와“ 백두대간 등산로(봉화군관내)안내” 안내 간판이 세워져 있다. 또 박달령 해발 1,009m 라는 표지목도 있다.

☞ 13:30 오전2리 주차장 도착

박달령에서 임도를 10m 정도 내려가면 능선으

로 내려가는 길목을 표시하는 꼬리표가 여러 개 붙어 있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임도로 내려가 30분 이상을 더 소비하여야 한다.

오전약수로 향하는 능선은 작은 계곡과 잘 생긴 소나무 군락을 지루하게 내려가야 한다. 도진 풍파에 굴하지 않고 곳곳이 곱게 자란 소나무들이 1000고지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향긋한 솔 향기를 풍겨 준다. 자연은 인간이 베푼 만큼 되돌려 준다고 하는데 그나마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고도를 낮춘다. 낙엽 쌓인 길을 내려서서 50분 정도 줄곧 내려가면 경북 봉화군 물야군 오전2리 마을 주차장에 도착하고 탄산이 용해된 유명한 오전약수터로 이름 난 곳이다.

바람부는 주차장에 퍼질러 앉아 준비된 닭 백숙과 자연산 더덕주로 허기를 달래고 버스에서 후미를 기다리며 오늘도 안전하게 산행을 마치게 해준 소백산 산신령께 감사 기도를 올린다.

<제22회차> 소백산(1,439m)

* 일시, 소요시간 : 2003. 12. 27(일)

03:30~13:50(10시간 20분)

* 행정구역 : 경북 영주, 봉화군

* 산행구간 : 죽령-연화봉-비로봉-국망봉-고치령-세거리 26km

◎ 구간 설명

이번 구간은 백두대간의 심장부, 한반도 내륙



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소백산맥을 종주한다. 우측으로는 경북의 영주시가 회방사, 소수서원을 앗고 골 깊은 산야에 묻혀 있는 풍기읍을 지나고, 좌측으로는 단양팔경과 도담삼봉이 총주호를 감돌아 고수고개와 고수동굴을 지나 천태종의 본산인 구인사를 좌측 어깨에 두고 영주 단산 세거티로 도착한다.

☞ 03:30 죽령 출발

하늘에는 구름이 점점으로 보이고 바람이 상당히 차갑게 느껴진다.

북쪽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오르면 죽령 매표소 입구 불빛이 보이고 입구에는 천문대 7.0km 비로봉11.5km 국망봉14.6km이라고 새겨진 소백산 안내 이정표를 보면서 포장도로를 따라 들어서니 좌측으로 죽령 매표소를 지난다. 천문대 올라가는 입구에는 눈이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하였지만 고 고을 높여 갈수록 도로에 눈과 얼음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진눈깨비와 바람과 안개로 앞길이 점점 험들어 진다.

☞ 04:32 천문대와 전당대(1083m)

눈보라를 헤치고 가느라 제2연화봉을 언제 지나갔는 지도 모르게 지나고 한차례 내리막길을 붙설레이 경기장 달리듯 미끄러지면서 내달리면 천체 관측소 옆길을 통과한다. 하지만 천체관측소의 모습이 눈보라에 파들려 윤곽만 어렵듯이 보인다. 소백산 국립공원 안내간판과 비로봉4.2km 회방사2.4km 죽령휴게소 7.0km 이정표를 지나고 곧바로 탐방로를 지나 올라선 곳은 1,383봉 전당대다. 얼다나 허겁지겁 올라 왔는지 보통 죽령을 출발하여 이곳까지는

약1시간30여분 이상 소요되지만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곳 우측으로 풍기읍에 위치한 유명한 사찰인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두운조사가 창건하였다는 회방사와 회방폭포가 1시간여 거리에 하산할 수있는 등로가 있다.

☞ 05:36 제1연화봉(1394m)

눈보라와 안개로 5m 정도만 떨어져도 앞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천문대 시설물과 자연학습 탐방로를 우측으로 끼고 바람이 조금 잦은 나무계단에 내려서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배낭에서 물통을 꺼내보니 거의 얼어있는 상태로 나무에 물통을 두드려 얼지 않은 물로 목을 축이고 비로봉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한다. 가파른 내리막 돌계단과 눈밭을 지나면 비로봉3.2km 제1연화봉0.8km 천문대1.2km라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곧이어 통나무 눈 계단을 오르고 봉우리를 하나 넘어 헬기장을 지나 다시 험겁게 한참을 나무계단을 올라 제1연화봉에 도착하면 천문대2.0km 비로봉2.5km 국망봉5.6km이라고 새겨진 이정표를 단한다. 연화봉 정상 표지석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길을 재촉하면서 남겨 둔 정상석은 훗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해본다.

☞ 06:30 소백산 비로봉(1439m)

小白山은 있는데 왜 大白山은 없는지 아니면 太白山의 태(太)가 큰 태이니 대백산으로 해석해보면 이론상 맞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다 서거정이 큰 대자에 점을 하나 흘린 것일까 많이 궁금해 진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땀이



베어 나오는 곳은 이제 얼음으로 덮혀 하얗게 변한다.

눈보라는 점점 더 심해지고 시야는 더욱 좁아진다. 1382봉 삼각점과 조선시대에 왕실의 가구 재료로 사용하였다는 희귀목인 주목을 보호하기 위한 주목관리소를 찾지 못하고 가는 길을 잠시 잃어버려 나를 포함한 선발대 몇 사람이 허둥대고 있는 데 좋은친구들 멤버중의 한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곧장 가면 된다고 하여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 천동리 삼거리가 있는 갈림길에 도착한다. 이곳에는 비로봉 0.6km 죽령휴게소 10.9km 천동 6.2km이라는 이정표를 세워져 있어 좌측으로 천동계곡,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관리소와 잘 알려진 고수동굴로 하산하는 길이 연결된다. 바람이 점차 심해지기 시작한다 소백산 바람은 본래 유명하지만 이젠 가담히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바람이 거세다. 천동리 삼거리를 지나 바람부는 통나무계단을 바람맞이 삼아 올라서면 소백산 주봉인 비로봉에 도착한다. 정상에는 소백산 비로봉 1439.5m라는 정상석이 눈보라속에 우뚝 서있었고 비로사 3.7km 국망봉 3.1km 죽령 11.5km 회방사 6.8km 천동 6.7km라는 이정표가 정상석 옆에 세워져 있었다. 생생 붙어대는 비로봉 칼바람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 앞의 길을 분간하기가 어렵다. 무작정 앞길만 보고 내려가니 앞서간 대원들이 올라오면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다시 올라가란다. 휴! 비로사에서 다시 올라와야 할 뻔했다. 온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래도 가야하는 길이기엔 다시

비로봉에 올라 국망봉 이정표를 확인하고 좌측으로 대간길을 택하여 잘 만들어진 나무 계단의 로프를 잡고 내려가지만 얼어붙은 나무 계단에 디끄러지면서 바람에 날려 자꾸만 부딪친다.

비로봉 정상 표지석 뒷면에는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서거정이 썼다는 “소백산”이라는 제목의 한시가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小白山連太白山 태백산에서 치달려 온 소백산
他百里押雲間 백리에 구불구불 구름사이 솟았네.

分明畫盡東南界 또렷이 동남방의 경계를 그어
地設天成鬼破 하늘과 땅이 만든 형국 귀신도 울었소.

서거정은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 학자로서 본관은 달성(達城/대구광역시에 위치)이요, 호는 사가정(四佳亭)으로 1444년(세종 26)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사제감직장(司宰監直長)을 지내고, 1451년(문종 1) 사가독서(賜暇讀書) 후 집현전박사(集賢殿博士) 등을 거쳐, 1456년(세조 2)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 1457년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장원, 공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1460년에는 이조참의 때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대사헌에 올랐으며, 1464년 조선시대 최초로 양관 대제학(兩館大提學)이 되었다. 1466년 다시 발영시(拔英試)에 장원한 후 6조(曹)의 판서를 두루 지내고, 1470년(성종 1)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으며 이듬해 좌리공신(佐理功臣)이 되고 달성군(達



城君)에 책봉되었다. 45년간 여섯 왕을 섬길 만큼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경국대전,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참여했으며, 또 왕명을 받고 향약집성방을 국역했다.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 지리, 의학 등에 정통했다. 문집에 사가집과 저서에 동인지화, 동문선, 역대연표, 태평한화, 필원잡기, 골계전이 있으며 글씨에 화산군권근신도비가 충주에 있다. 그리고 대구 달성 귀암서원에 제향되었다.

☞ 07:57 국망봉(1420m)

혼자서 열심히 눈길을 헤집고 달려가니 사천왕 멤버들이 걱정스럽게 국망봉에서 나를 기다린다. 혼자서 내 뼈더니만 꼴 좋다고 놀려대면서 다음부터는 혼자서 가면 사천왕에서 제명시켜 버린다고 엄포를 놓는다. 산에만 가면 왜 그렇게 흥분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유있게 산행을 하지 못하는 지 산행을 끝나고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도 허겁지겁 산행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다음부터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산행하도록 노력하여야겠다고 다시 반성해 본다.

서거정의 한시를 헤아리며 바랄부는 비로봉 정상을 지나 바람에 넘어 지지 않으려고 나무계단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면 국망봉1.6km 이정표를 지나 어의곡리 갈림길 안부에 도착하고 어의곡리4.7km 비로봉0.4km 국망봉2.7km이라는 이정표를 만난다. 이곳에서 왼쪽은 어의곡리로 내려가는 하산길이 연결되고 대간길은 북능을 따라 계속 산행하게 된다. 계속해서 10여분 능선길을 지나면 어의계곡 삼거리에도

착하여 좌측으로는 어의계곡으로 하산하는 등로가 연결된다. 다시 대간길은 북능을 따라 1326봉과 1380봉에 올라서 잠시 숨을 돌리고 서서히 오름길을 오르던 초암사 갈림길에도 착하여 국망봉0.3km 비로봉2.8km 초암사4.1km이라는 이정표를 우측으로 끼고 지나 앞에 보이는 암봉인 국망봉 표지석이 있는 정상에 올라선다.

국망봉 정상석 바로 옆에는 아래와 같은 슬픈 안내 글이 있어 여기에 옮겨 본다.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나라를 왕건에게 빼앗기고 나서 천년사직과 백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명산대찰을 찾아 체천 백운면 방학리 궁뜰에 동경저[東京邸]라는 궁을 짓고 머물러 있었다. 왕자인 마의태자는 신라의 국권을 회복하려다가 실패하자 엄동설한에도 벼옷 한 벌만 걸치고 당국의 한을 달래며 이곳에 올라 멀리 옛 도읍 경주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이후 이 곳을 국망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10:39 연화동 갈림길(1015m)

국망봉 표지석 안내문을 읽고서 숙연해진 마음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증명사진을 찍고 하늘은 흐린 것인지 구름이 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햇빛은 없고 아직까지도 시야는 상당히 흐리다.

지나는 길 큰 바위 밑에 자리를 잡고 바람을 피하면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한다. 오늘의 메뉴는 육개장에 만두떡국, 돼지 양념 구이 등이다. 눈내리는 바위옆에서 휘발유버너에 불을 붙이



고 물이 얼어 할 수 없이 코펠에 소주를 부어 돼지구이를 만들어 먹으니 소주맛인지 양념맛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다고 난다. 그래도 허기진 배를 위해서 부지런히 입을 움직인다. 9시경 아침식사를 마치고 복사면을 내려가려니 디끄러워서 아이젠을 하고 무릎까지 차는 눈 길을 헤쳐나간다. 토요일 오전에 소백산 국립공원북부지소에 문의 결과 정상에만 눈이 조금있다고 하여 스패치는 가져 오지않고 아이젠도 4발짜리로 비상시를 대비하여 준비해 온 것이 다행이라 생각해 본다. 새발 갈림길에 도착하여 해발1260m 상월봉0.1km 국망봉0.6km이라는 표지독 이정표를 지나 오르막 경사길을 오르면 암봉인 상월봉에 도착한다.

상월봉을 뒤로하고 내리막길을 20여분 천천히 내려서면 1264봉 직전 안부인 늪은택이재에 도착하여 우측으로 영주 단산면 좌석리 상좌석으로 내려가는 갈림길에 도착한다. 좌측으로는 어의계곡 벌바위와 만나는 벌바위골로 하산하는 등로가 있다.

늪은택이재를 지나 조금 올라서면 해발1260m 신선봉 갈림길에 도착하고 국망봉1.8km 신선봉1.2km 마당치6.5km이라는 이정표를 만나고 좌측으로 신선봉과 민봉 그리고 구인사로 가는 등로가 있고 대간길은 계속 아래로 떨어진다.

신선봉 삼거리를 뒤로하고 계속 하산길로 내려서서 헬기장을 지나 형제봉8.0km 국망봉4.0km 이라는 이정표를 지나고 다시 2번째 헬기장을 을 지나면 해발1015m 상월봉4.3km 마

당치2.5km 연화동3km이라는 표지독이 세워져 있는 연화동 삼거리에 도착한다.

☞ 11:37 마당치

1031봉 삼각점을 뒤로하고 마당치로 갈라지는 삼거리를 지나 갈참나무가 뻗뻗히 들어서 있는 능선을 지나서 마당치 안부를 내려다 보면서 1060봉을 올라선다. 지도상 우측으로 영풍바위, 좌석바위, 배바위라고 표기 하였는데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계속하여 가던 길을 아래로 떨어지면 마당치에 도착한다. 도착한 이곳에는 마당치 해발910m 형제봉3.5km 국망봉8.5km 새독7.5km이라는 표지독 이정표가 있었다. 마당치는 좌측으로 단양 영춘면 남천리와 우측으로 영주 단산면 좌석리를 잇는 고개로서 공터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었고 지도상에는 길이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 11:58 형제봉 갈림길(1032m)

마당치를 지나 1032봉 정상 직전에는 형제봉5.0km 국망봉 7.0km 이정표를 지나고 봉우리를 넘어 오르막길을 15분여를 올라서면 1032봉 형제봉과 고치령으로 갈라지는 형제봉 삼거리다.

정상 표지독에는 형제봉 갈림길 해발1032m 국망봉9.2km 형제봉2.8km 고치령1.9km라는 이정표를 만나니 반갑다.

이곳 1032봉은 유서 깊은 전설이 서려 있는 곳으로 선답자와 세거리 주민들에 의하면 조선시대 금성대군이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 성



을 쌓고 궁을 지었던 곳으로 순흥면 사람들은 지금도 일년에 한 번 소를 잡아서 단종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는 전설 아닌 실제 사실을 전해 주었고 만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마을에 화재와 같은 큰 재앙이 생긴다고 전한다. 그리고 좌측으로 비껴선 헬기장 바로 뒤에 단종의 영정을 모셨던 사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요즘은 전국각지에서 온 무당들의 굿판이 끊이지 않고, 사당에는 단종의 영정을 모셔 놓았었는데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전설로만 전해지고 있다.

☞ 13:15 고치령

이젠 햇빛에 얼어 붙었던 등산복의 얼음들이 다 녹고 그렇게 앞길을 가로막던 눈발도 날리지 않으면서 시야가 많이 회복되었다. 863봉을 지나 내티막길을 내려서면 고치령 해발 760m 마구령8.0km 늦은목이13.9km 비로봉14.1km 이정표가 고치령 도로 건너편에 서있다. 구간의 종착지 고치령, 이곳 우측으로는 세거리를 통해 단산면 소재지로 하산하는 시멘트 포장 도로이고 좌측으로는 김삿갓 묘가 있다는 부석면 윗새목과 큰터 그리고 의풍 영월로 연결되는 포장길이다.

☞ 13:50 세거리 종점

고치령에 도착하여 지형을 암기하고 우측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다른 산악회는 좌석티 이장의 타이탄트럭으로 고치령까지 태워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태워주면 좋을 것인데 하고 불평을 한다. 그때 저 멀리 고개길을 엔진소리도 요란하게 타이탄이 올라오고

있다. 앞서간 백두대간 제7차 고산자회 회장님께서 대원들의 수고를 생각하여 올려 보낸 것이라는 이장님의 설명을 듣고 고치령 고개에 수서의 김고문님께서 허벅지 통증으로 쉬고 계시니 뒤에는 천안팀과 함께 태워 오면 중간에서 우리 사천왕은 타겟노라고 하여 올려보낸다. 한참을 내려오다 타이탄에 합승하고 오늘의 종점인 세거리에 도착하여 오늘의 산행을 마감한다.

2003년 1월 12일 성삼재를 시작으로 1년이 지난 기념 및 송년회를 열기로 하여 풍기의 서부불고기집에서 파티를 벌이니 지나간 구간들의 이야기에 음식점이 온통 잔치분위이다. 지금까지 산행을 하면서 안전사고없이 진행된 것을 모두 자축하고 2004년에도 아무 탈 없이 진부령까지 가자고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오늘의 일정을 접는다.

■ 대간길에 만나는 이야기들

◎ 회방사

회방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된 사찰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 불에 타 중창을 거듭했다. 현재의 건물은 근년에 세운 것이다. 이곳 회방사에는 한글 창제 당시 원문이 적힌 「월인석보」 제1, 제2권이 있었는데, 6·25전쟁 때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다. 절 앞에 있는 회방폭포는 소백산에 몇 되지 않는 폭포여서 인기가 좋다. 구인사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는 소백산국립공원 동북쪽에 치우쳐 있어 사람들의 발길은 다소 뜸하지만 독실한 신도들의 발길은 매우 잦



다. 금계포란(金鷄抱卵)형에 자리한 구인사는 전국 각지에 크고 작은 말사를 200개쯤 거느리고, 신도들도 170만명쯤이나 된다고 한다. 백제의 현광법사가 처음으로 들여온 천태종은 고려 대각국사 의천 때 본격적으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근대에 들어 중국에서 천태종을 공부하고 돌아온 상월스님이 1949년 '소백산이 중생을 제도하는 곳'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구인사를 세움으로써 천태종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소수서원비로봉과 국당봉 사이를 흐르는 죽계계곡 하류계 자리한 소수서원은 주세붕이 세운 한국 최초의 서원이다. 1550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이 조정에 상소를 올려, 소수서원이라는 액자를 받았고, 사서오경, 성리대전 등의 내사(內賜)를 받게 되어 최초의 사액서원이자 공인된 사학이 되었다.

소수서원은 1872년 대원군이 전국에 난립한 서원을 철폐할 때도 화를 면한 47개의 서원 가운데 하나로 지금도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명종의 친필로 된 「소수서원」이란 편액이 걸린 강당, 직방재와 일신재, 학구재, 지락재 등의 건물이 남아있다. 또한 이곳에는 국보 111호인 안향의 영정, 보물 485호 선현십이전 좌도가 있고, 서원 입구에는 보물 59호인 당간 지주가 있다.

◎ 죽령

영주와 단양을 잇는 죽령(689m)은 영남(嶺南)과 호서(湖西)를 갈라놓는 길목에 해당하는 고개. 5번 국도와 중앙선 철도가 이곳을 지나

는데, 중앙선 철도 죽령역에서 회방사역으로 사이의 구간에는 길이가 4.5km에 달하는 루프선(loop rail)인 죽령터널이 있다. 루프선은 표고차가 큰 구간에 선로를 건설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세계적으로는 알프스에서 산악선로(山岳線路)에 채택된 것이 처음이다.

또, 삼국시대 때부터 봄·가을 나라에서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조선시대에는 죽령사(竹嶺祠)라는 산신사당이 있었다. 성혈사소백산 일원에서 유명한 사찰이라면 회방사 비로사 초암사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백산 산자락에 유서깊은 천년고찰 성혈사(聖穴寺)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성혈사는 1:50,000 지형도에서조차 매우 작은 글씨로 기존 등산로와 동떨어진 위치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백산 국당봉 남쪽 초암사 갈림길에서 백두대간을 떠나 남동쪽 963m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초암사계곡과 복간터골 사이)에 있다. 성혈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전해진다. 지금의 건물은 임진왜란 이후에 중창된 것이지만 고색창연함은 그 어느 사찰에도 뒤지지 않는다. 보물 제 832호인 나한전(羅漢殿)이 본사찰의 소중한고도 볼 만한 유적이다.

나한전은 정면 3칸에 측면 1칸의 단층 맞배기와집으로 공포를 기둥과 기둥 사이의 평방위에 짜 엮은 다포식(多包式) 건물이다. 건물 정면 3칸에 설치된 창호가 불만한데, 꽃살창호로서 특히 어간(御間)의 것은 연못에 게 들고기동자상 여의주 기러기 등이 정교하게 조각된



특출한 작품이다. 대웅전 뒤뜰에 부채살처럼
가지를 펼친 노송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 봉황산 부석사

마구령과 선달산(1236m) 사이의 각곳산
(966m)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 빛은 봉황산
(819m) 남서쪽 자락에는 우리나라 문화유적의
자랑인 부석사가 자리하고 있다. 부석사는 봉
황산에 안겨있는데도 일주문에는 소백산도 아
닌 '太白山 浮石寺'라고 쓰여있다. 이는 태백
산이 의상의 스승인 지엄선사가 살았던 중국
의 종남산과 동격시 되면서 우리나라 화엄사
상의 본거지로 숭상되었기에 때문이라고 한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부석
사는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도량(根本道場)
이다.

경내에는 무량수전, 조사당, 소조여래좌상, 조
사당 벽화, 무량수전 앞 석등 같은 국보와 3층
석탑, 석조여래좌상, 당간지주 등의 보물이 있
다. 절 한편의 부석(浮石)에는 이 절 창건에
얽힌 의상대사, 그리고 의상대사를 사모했던
선묘라는 여인 사이의 애뜻한 사랑얘기가 깃
든 설화가 전한다.

무량수전은 고려 중기건축이지만 우리민족이
보존해온 목초건축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
래된 건축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이제는 고인
이 된 전 국립박물관장 최순우선생이 '호젓하
고도 스산스런 희한한 아름다움'이라고 극찬
했던 부석사 무량수전. 그 배흘림기둥에 기대
서면 이 가람의 건축미와 공간미를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오전약수

백두대간이 북동으로 꺾이는 옥석봉(1,242m)
정상에서 남서쪽 절골 아래로 2.5km 거리에 위
치한 오전약수는 수질이 탄산성과 철분이 강
한 소문난 약수다. 위장병과 피부병을 비롯해
서 유해중금속 및 병원성미생물을 해독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요양
하러 찾아오는 이들이 많다. 물맛은 유리탄산
과 칼슘이온이 많아 사이다보다도 혀끝을 강
하게 쓴다.

옛날 보부상들이 발견, 처음에는 초정약수로 불
리었던 오전약수는 조선조 9대 성종이 전국약
수의 우열을 검사케 한 결과 직접 맛을 본 후
가장 좋은 약수로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산이란 인간의 의지만으로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이 인간을 받아 들여야 오를 수 있다
정상이 한발 한발 가까워질때 오르는 자는 그 만큼 더 겸손해져야
비로소 산이라는 대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무언의 깨달음을 호흡할 수 있는 것이다.
- 8,000미터의 희망과 고독, 엄홍길 저, 2003. 11 초판발행 -